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불균형과 과제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한국의 2025~2030 기간 잠재성장률은 1% 초반대로 매우 낮았는데, 여기엔 우리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문제도 한몫한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우리의 경제사회에 주는 충격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 몇 가지 통계청 자료를 보자.

먼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 1.0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 2023년 0.72명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2024년 0.75명으로 기대치 못한 반등이 있었다. 이는 전년 최저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 약간 흥분되지만, 고무적 현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우리나라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2020년과 2019년을 기점으로 하락해, 2025년 현재 각각 5168만 명, 3591만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총소비의 축소와 함께 내수시장 위축을 가져오고 향후 인력난에 의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 2025년 고령인구비율이 20.3%로서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더욱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나타난 총부양비 수치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7월 발간한 보고서에는 합계출산율 0.82명을 가정하는 경우 100년 후인 2125년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인구의 14.6%인 735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5년 단위의 1차(2006~2010) 저출산 기본대책에 이어서 현재까지 4차(2021~2025)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성과는 한마디로 실패 그 자체라 말할 수 있다. 이젠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제고 대책을 더 미룰 시간이 없다. 필자가 국회와 대학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고민했던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저출산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감소로 향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은 이를 막기 위한 지출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주, 육아, 양육, 교육 등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비혼출산’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공론화 장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국내 이민을 확대하고 해외인력 특히, 고급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가 요구된다. 2022년 OECD 회원국 중 스페인의 출산율은 1.16명으로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37위이지만 이민으로 전체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를 보강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넷째, 2019년부터 제외되었던 출산율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꼭 마련해야 한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필자의 이러한 제안들이 백년하청(百年河淸)의 일로 여기지 않길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생산적 금융을 고민할 때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방패삼아 이자수익으로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가계대출이 불어났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제를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 수익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실적이 좋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외부의 시선이 굵지 않은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은행권은 금리 하락기를 맞아 예금금리를 내렸다. 앞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신금리도 내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55%로 작년 10월(3.37%)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금리인하와 달리 오르 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기준 연 3.93%로 올해 2월(4.23%)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은행은 대출 금증세를 잠재우기 위해 대출 금리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해명한다. 당분간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당국의 관리 기조에 대응하면서 예대금리차(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확대됐다.

KB국민· 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418%포인트(p)로 집계됐다. 전월(1.336%p) 대비 0.082%p 확대된 수치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선 예·적극으로 받

을 이자는 줄여 들고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자장사’로 늘어난 은행 이익을 지적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냥 자금을 출자하는 방법으로는 생산적 금융이 될 수 없다. 마중물과 같이 은행의 투자로 소비자들의 금융혜택이 늘어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금 금융소비자와의 상생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생산적 금융은 무엇일까. 단순히 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뛰어 넘어,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활동이 생산적 금융이다. 즉, 은행 자금이 미래 성장동력이나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상생금융을 통해 사회 환원에만 신경썼다면 좀 더 고차원적인 금융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8월 1일 (음 6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평소엔 물도 조심해서 마셔라. 48년생 관재수가 있으니 매매 시에 서명은 신중. 60년생 인수印線가 가세하면 문서운도 빛난다. 72년생 오래전 친구가 소식을 전해온다. 84년생 사업장이 적자赤字에서 흑자로 들어서게 된다.



37년생 행운이 손짓하는 날이니 뜻한 바가 이뤄진다. 49년생 오늘은 붉은 색을 입으면 구실이 따른다. 61년생 재산증식의 힘은 움직이는데 있는데. 73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85년생 일이 미뤄져도 기다려라.



38년생 자녀의 수험생은 책상배치도 중요하니 진단해보자. 50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들어온다. 62년생 뛰다보면 행복이 온다. 74년생 부귀한 자가 칼을 얻는 격이니 실력을 배양. 86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39년생 금고를 들어놓는다면 북북동풍방향에 둘것. 51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으나 사람은 옛사람이. 63년생 성공의 척도는 양보다 질. 75년생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려거든 주변을 정갈히. 87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제거되니 후련.



40년생 진취적 행동이 타인의 모범이 된다. 52년생 삶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을 뒤라. 64년생 재산을 증여받을 일이 생긴다. 76년생 아름다운 도화桃花가 합음을 하면 재물이 융성해진다. 88년생 아찬은 동쪽에 육찬은 서쪽에.



41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한 날. 53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남들의 질시를 받는다. 65년생 친구의 모임에 초대받음. 77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자재. 89년생 풍수에서는 색상이 지닌 영향력도 있음이니 의상 색도 중요.



4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지만, 상연에서 재물은 늘어남. 55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으로 온다. 67년생 스스로를 응원하며 가자. 79년생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았다. 91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이니 일일일비보다는.



43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부단히 노력. 55년생 피곤한 날이니 외출을 자제. 67년생 불황일수록 빨간색 상품이 잘 팔린다는 설이 있다. 79년생 호랑이새끼를 기르면 후환이 된다함이니. 91년생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44년생 산 좋고 물도 좋은데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56년생 주황색 옷이 행운을 가져온다. 68년생 지인을 살피니 내 마음이 편하다. 80년생 돈이 흩어지면 책상배치를 바꿔보도록. 92년생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는 반드시 망신을 당한다.



45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이 필요. 57년생 뒤편 열심히 하면 운도 따른다. 69년생 지는 태양을 막을 수는 없으나 미래를 위해 복습. 81년생 어부지리漁父之利가 되지 않도록 양보심을. 93년생 제면치리에 집안 경제가 거덜 나겠단다.



46년생 종일 편안하다. 58년생 목공기술을 배우니 즐겁다. 70년생 뒷사람의 도움에 따른다. 82년생 위기일 때 마지막 수비자가 되는 하든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력이지 고소·고발은 아니다. 94년생 먼 곳에 있는 것은 급할 때 소용없다.



47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될 것이다 외쳐보라. 59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감수해라. 71년생 지출이 많이 있으니 소품은 다음 날로. 83년생 작은 먼지로 눈이 매우 아프다. 95년생 운을 부르는 비결은 정리정돈에서부터 시작되니 실행.



김상회의四季

희망, 명리학

사람은 때때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곤 한다. 그런 때 많은 사람이 명리학이나 사주에 관심을 가진다. 명리학을 정해진 운명을 살피는 도구로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한쪽 면만 보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면은 희망을 찾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명리학은 사주에 담겨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이끌어 준다. 어떤 사주는 직업운이나 재물운이 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리학은 그 자체가 불행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명리학은 오히려 자기의 노력과 의지가 더해지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명리학이 필요한 이유는 사주나 운이 나쁘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주나 운을 바탕으로 난관을 해결할 현실적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사주 팔자학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주가 나쁘고 운세가 좋지 않음을 한탄한다.

사주를 좋고 나쁨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사주든 어느 정도의 복은 품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사주에 숨어 있는 복을 찾아내면 그 복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희망을 품을 수 있음이니 한탄할 것은 없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뿐이다. 명리학은 이렇게 숨은 복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학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사주와 운세를 알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다면 명리학의 통찰을 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2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2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박한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 3650

결합형 �도쿠

컬러 �도쿠 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 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7	8	9	6	2	3	8
2	9	6	2	9	8	7	8	1
8	8	2	2	1	7	9	6	9
1	7	9	8	2	8	6	9	2
8	6	9	7	2	9	8	1	2
2	2	8	1	6	9	8	9	7
6	2	1	9	7	2	9	8	8
7	9	8	9	8	1	2	2	6
9	8	2	6	8	2	1	7	9

9	7	8	2	8	1	2	9	6
9	1	2	9	6	2	8	7	8
6	2	8	9	7	8	2	1	9
2	6	9	2	1	8	9	7	7
8	8	1	7	9	2	9	6	2
7	9	2	8	9	6	1	2	8
1	2	9	8	2	7	6	8	9
2	9	8	1	8	9	7	8	2
8	8	7	6	2	9	9	2	1